권위 벗어던지고 소통…장성군 행정 품격이 높아지다

유두석 군수 소통행정 주목

군민이 군정 주역…행정문턱 낮춰
이장과의 스킨십 늘려 현안 공유
주민자치센터 전 읍면 확대 설치
간부회의 쌍방향 토론 방식으로

유두석 장성군수가 추구하는 모든 행정의 중심에는 '소통'이 자리 잡고 있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출신이기도 한 그는 수십 년간의 중앙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간·조직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에 익혀왔다고 한다.

유 군수는 이 같은 신념으로 민선 6기 취임과 동시에 권위부터 벗어던졌다. 그리고 군민과의 소통을 약속했다. 그는 물론 내부 조직인 공직자와의 소통도 강화했다. 그 결과, 과거 수동적이던 행정조직이 일을 스스로 발굴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군정의 주역으로 군민들이 들어오면서 행정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유 군수가 강조해온 소통행정이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의 색(色) 마케팅인 '옐로우시티' 사업을 창조해 전국적인 히트상품으로 자리 잡는 등 결실을 맺으면서 행정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모범적인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공직경력 5년 미만의 젊은 인재로 구성된 '희망프로젝트' 단원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행정의 중심은 군민…한 발짝 더 다가서는 장성군=유 군수는 행정의 중심으로 군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한발 다가가는 정책을 통해 거리를 좁혔다. 유 군수는 특히 주민과 행정기관의 '연결고리'인 마을 이장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유 군수는 행정기관이 각종 정책과 사업을 일방적으로 소개해오던 기존 이장회의 방식부터 확 뜯어고쳤다.

유 군수는 지난해부터 서부와 중부, 북부권으로 나눠 권역별 이장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군수와 군청 실·과장, 이장들이 해당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

장성군이 지난해 발족한 '옐로우 감성디자인단'도 지역 주민을 행정의 일원으로 참여시킨 대표 정책 중 하나다.

주민과 전문 디자이너, 공무원으로 구성된 디자인 자문단은 장성지역에 건립되는 건축물과 공공시설물에 옐로우시티의 감성이 담긴 디자인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군민중심의 군정 기조는 읍면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장성동화면사무소는 최근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인 이장과 반장, 사회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소통형 통합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방통행식 행정 벗어던지니, 지역민도 행정 도우미 자처=장성군이 지시형·일방통행식 행정을 벗어던지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되레 군민의 도움을 받아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물이 지난해 열린 '장성가을노란꽃잔치'다. 신생 축제로는 이례적으로 72만여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가는 초대박을 터트렸는데, 대성공을 이룬 화려함 뒤에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직접 식재한 꽃정원과 문화행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떤 소통행정 펼쳤나

옐로우 감성디자인단
주민·전문가·공무원 함께 고민

가을노란꽃잔치 대박
민·관 거버넌스 효과 72만명 몰려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군민 불편 덜게 읍 이외에도 설치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와 군민들은 황룡강변에서 열린 꽃잔치를 위해 여름내내 자발적으로 꽃 심기 운동에 동참했으며, 황룡강은 물론 장성 시가지 곳곳에도 노란꽃정원을 조성해 '옐로우시티'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경관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군민 입장에서 고민하면, 민원 해결도 착착=장성군의 소통 의지는 주민 밀착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폭넓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수요맞춤형 정책으로 확대한 것이다.

장성의 서부와 북부에 건립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대표적이다. 2년 전 만해도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장성읍 한 곳에서만 운영되면서 장성읍과 떨어진 지역의 농민은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같은 지역민의 불편한 마음을 읽어낸 장성군은 곧바로 농기계 임대사업도 2곳을 새로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서부권 사업장은 지난해 문을 열고 운영중이며, 북부권은 오는 5월 오픈할 예정이다. 또 임대 농기계 기종 역시 농업인과 소통을 통해 부속작업기 위주로 구비했다.

또 장성읍에만 있던 주민자치센터를 전 읍면으로 확대하고, 어르신에게 지급되던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설문조사를 통해 효도권으로 통합한 것도 소통정책의 결과물 중 하나다.

◇직원과의 소통으로 숨은 잠재역량 발굴=유 군수의 소통행정은 군청 공무원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돼 숨은 잠재적 역량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유 군수는 특히 젊은 공직자들이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 참신한 아이디어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공직경력 5년이 넘지 않은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희망 프로젝트단'이 그 선봉에 서있다.

'희망 프로젝트단'은 창의적 마인드를 지닌 젊은 공직자 20여명이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을 통해 장성발전을 이끌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발굴하는 연구모임이다. 유 군수는 또 간부회의 방식도 기존 단순 업무보고 방식에서 자유로운 의견이 오가는 쌍방향 토론 방식으로 바꿨으며, 평소 대면이 어려운 읍면 직원과의 '치맥(치킨-맥주)파티' 등 격의 없는 소통도 수시로 펼치고 있다.

◇부서간 칸막이 없애고, 업무효율 업그레이드=유 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부서간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유 군수는 그 첫 행정으로 농업행정과 기술로 이분화돼 있던 기존 농업조직을 '장성군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해 한 곳에서 농업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장성군은 농업분야에서만 2015년 8개 부분, 2016년 5개 부분의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또 비슷한 성격의 노인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주민복지과와 보건소,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담당자 회의를 열도록 해 알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소통은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간의 생각 차이를 줄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면서 "군민과의 소통, 직원과의 소통, 부서간의 소통이 곧 행정의 고품질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민들이 지난해 '옐로우시티' 조성을 위해 도심 곳곳에 꽃을 심는 모습.

유두석 장성군수가 지난해 '장성가을노란꽃잔치' 개최를 앞두고 담당직원들과 함께 황룡강변 꽃길을 점검하는 모습.